

2021 고양 인권작품공모전 수상작 돋보기

수필 분야 장려상

편견도 거리두기

글: 김희애

※ 고양시에서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인권문제와 변화하는 시기에 맞춘 포용적 인권회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1 고양 인권작품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수필 분야 장려상에 선정된 작품을 수록합니다. 작품 내용은 <고양소식>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낫 둘, 하낫 둘, 세엣...

건강, 그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닌가. 2019년 한 여름, 그 날도 나는 동네공원으로 운동을 하러 나갔다.

뒤뚱뒤뚱... 절뚝거리는 다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공원을 걸었고 공원에 마련된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있었다. 몸이 내 맘을 따라주진 않지만 열심히 해보리라 하며 잘 되지 않는 운동이지만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있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힐끔거렸다. 하지만 이윽고 신경을 끄고 내 쪽을 돌아보지 않은 채로 자신만의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사람들의 힐끔거림은 익숙한 것이었고, 내가 걸을 때나, 몸을 움직일 때나 잠시 동안 힐끔거릴 뿐 나에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날도 그런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튜리닝을 입은 어떤 중년의 남자가 나를 계속 아니꼬운 듯이 쳐다보았다. '내가 장애가 있어서 쳐다보는 건가?' 나는 생각을 했다. '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잘 따라주지 않는 몸이 신기한 건가' 하면서 내가 가진 불편함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그 사람은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

그러다 내가 다리를 고정시키고 운동기구를 이용해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렸다.

"병신이면 집에 가만히 있든가, 왜 공원에 나와서 난리야."

그 목소리에 나는 그쪽을 돌아보았고, 그 아저씨는 나를 바라

보고 있었다. 나를 보고 하는 말이었다.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하는 내가 불쾌하다는 듯이 몇 초를 응시하다 그 아저씨는 뒤를 돌아 사라졌다.

나는 의아했다. 나는 그저 운동을 하고 있었고, 운동을 하면서 같이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나는 놀라서 기구에 고정시킨 내 발만을 계속 보고 있었다. 그 날 이후 나는 공원으로 나갈 때마다 그 말을 떠올렸다. 불쾌하고 마음이 아팠다. 그 아저씨는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공원을 걸을 때마다 조금 더 조심조심 걸었고, 운동도 조금씩 줄여서 했다. 공원에 내가 나와서 운동을 하는 게 혹시 민폐인 걸까? 생각도 했다. 내가 절뚝거리는 게 눈에 보여서 그게 불쾌했던 건가? 그런 생각도 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공원에 나와서 운동하면 안 되나요? 그 아저씨께 묻고 싶었다.

그러다 2019년의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2020년이 되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사태가 일어나면서 내가 다니던 학교도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강신청을 했고, 비대면이지만 '생활스포츠'라는 교양강의를 듣게 되었다.

생활스포츠라는 과목은 원래는 학교 체육관에서 이론과 함께 진행되는 수업이었지만, 비대면 교육방침으로 2020년에는 이론 강의만 영상으로 진행되었고, 그래서 수강신청을 했던 거였다. 나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기존의 강의방식대로라면 제대로 강의에 참여할 수 없어 학점을 제대로 못 받았을 테지만, 비대면 이론 강의니 나도 참여해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신청을 했다. 강의는 영상이 제공되었고, 강의실을 대체해 SNS 단톡방이 생겼다.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은 조별채팅방에서 이루어졌다. 내 장애가 수업을 들을 때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 나는 강의 영상과 PPT를 보면서 학우들과 열심히 토론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며 수업에 참여했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갔다.

강의는 비대면이었지만 성적평가는 기말고사를 통해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시험을 보러 학교에 나가야 했다. 한 학기 동안 토론과 강의 노트를 통해 배운 것들을 최선을 다해 적고 교수님께 답안지를 제출하는데, 제출하려 교탁 앞으로 다가오는 나의 걸음과 답안지에 적힌 내 이름을 보고 교수님께서는 놀라시

며 내게 말을 거셨다.

"스포츠 강의인데 희애 학생이 단톡방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해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강의 재밌었나요?"

"네, 재미있었어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학기동안 수고했어요, 기뻐도 돼요."

답안지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내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있었다. 오늘 교수님을 처음 뵈었지만 교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나는 운동치였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 일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원래 운동을 직접 했어야 하는 강의였는데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신체의 능력이 아닌 강의에 임하는 태도만으로 나를 교수님께서 평가하실 수 있었고 나는 그게 감사했다. 내게 주어진 신체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태도, 정신... 늘 열외 당했던 분야에서 좋게 평가받는 기분은 색달랐다.

장애인은 정신이나 신체의 한 부분이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주어진 신체능력이 별로 좋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겪어야 한다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된 것은 아니다. 나 또한 그랬다.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바깥에 나와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더 정확하고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내 자신만의 '한계'가 있는 것뿐.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통해서 나는 오히려 장애인임에도 비대면수업을 통해 신체의 제한에 상관없이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렸다. 공원의 아저씨의 편견, 불편한 신체에 대한 속상함들은 치유되었고, 교수님께서 장애인인 나조차도 신체의 제약 없이 포용할 수 있었다.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코로나시대의 방식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주어진 한계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 그 능력으로 편견을 부수는 시대,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능성일 것이다. 🌈